

전남 신안 섬마을 유권자들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전남 신안 작은섬 참정권 포기 우려
행정선·도선 동원 600여명 수송 나서

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유권자들에게 교통여건이 지원되지 않아 참정권 포기가 우려되고 있다.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에 신안군 28개 작은섬 유권자 1000여명은 선박을 이용해 투표소가 설치된 큰 섬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에는 전체 50개 소의 투표소 중 연륙된 지도와 증도, 압해도 등을 제외한 투표소 36개소가 섬에 설치돼 있다.

이들 섬 중 일부 작은 섬 유권자들은 투표를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해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큰 섬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흑산면 장도 유권자들은 진리에 설치된 제1투표소로, 압해읍 효지도 주민들은 복룡리 제2투표소로 이동해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신안군은 주민들의 원활한 투표참여를 위해 행정선과 도선 등 7척을 동원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 압해읍 효지리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가 설치된 압해읍 복룡리로 선박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지도읍 포작도와 흑산면 장도리·오리마을 등 12개 섬 유권자 600여명의 수송에 나설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취약구간을 지정해 요청하면 가능 여부를 군에서 판단해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28개 섬 중 이들 12개 섬을 제외한 16개 섬 400여명의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유권자 대부분이 고령이지만 시간이 제한된 경기 여객선이나 자신들의 선박

을 이용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교통에 대한 강화된 규정으로 민간여선 이용도 어려움이 많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흑산면 상태도 김태복(51) 이장은 “상태도와 증태도 주민 70여명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하태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교통편이 없어 투표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민간여선을 이용하다가 자칫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작은 섬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완도군, 2022년까지 40억 투입

여서도, 아담하고 정겨운 ‘가고싶은 섬’으로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본격 개발된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0억원을 들여 여서도 주민소득 확충 지원과 복지향상, 닥터 헬기 착륙장 설치, 섬 둘레길 개설, 경관개선,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여서도만의 특색있는 아담하고 정겨운 돌담길 경관개선과 주택 채색작업으로 마을 내 환경을 가꾸어 나간다.

깨끗한 바다자원을 활용해 스키스쿠버 체험 등 해양레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 완도=김남중 기자



여서도 전경.

‘찾아가고 싶은 33섬’ 15곳 선정

“휴가철, 전남도 섬들로 놀러 가볼까?”

‘2018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가운데 전남 섬 15개가 포함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됐다.

3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 섬인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 진도 관매도, 대마도, 신안 반월·박지도, 10개 섬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섬 전문가, 관광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여름철 관광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놀-섬, 숲-섬, 맛-섬, 미지의 섬, 가기 힘든 섬 등 5가지 주제로 분류해 선정했다.

테마별로 가족, 직장의 트래킹, 캠핑을 즐기기 좋은 ‘놀-섬’에는 하화도, 가우도, 소안도, 임자도, 4개 섬이 선정됐다.

휴가철 재충전 등 한적하게 휴양할 수

있는 ‘숲-섬’에는 낭도, 애도, 생일도, 관매도, 대마도, 반월·박지도, 6개 섬이 포함됐다.

섬만이 지난 특별한 먹거리가 풍성한 ‘맛-섬’에는 영산도가, 자연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에는 연홍도, 장도, 병풍도, 3개 섬이 선정됐다.

쉽게 가기 어렵지만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섬에는 300년 역사의 돌담으로 유명한 완도 여서도가 포함됐다.

행안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각

지자체 등은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여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펼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해에 이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도 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지 10곳이 포함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남 섬에 수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섬 마을을 가꾸기 사업을 계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보성군

조기 하계 방역소독 시작

보성군은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조기 하계 방역소독에 들어갔다. 계속되는 고온으로 매개모기 및 위생해충의 조기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31일 군에 따르면 군, 읍·면 방역담당자와 마을단위로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여한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이달부터 주택가, 학교, 마을회

관과 하수구, 정화조, 축사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5회 이상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소독은 살충제에 물을 희석하여 살포하는 친환경적인 분무위주의 방역소독을 추진하여 유해성 최소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상근무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없는 청정 보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남 보성=문상환 기자 m8527188@



전남 목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유토피아 인 아트’ 기획전

전남 목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이 다음 달 8일부터 8월 5일까지 ‘유토피아 인 아트’ 기획전을 연다.

2009년 7월 문을 연 목포의 대표 공립 미술관으로 이번 전시는 개관 9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는 박화자 등 유명 작가 4명이 이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다.

미술관 관계자는 31일 ‘유토피아적 사고에서 접근한 이번 전시는 감성의 영역인 예술, 특히 미술이 긍정적인 역할을



목포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장”이라면서 “일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이상향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김남중 기자